‘숭고한 뜻’ 새기며 난국 극복

해남 대흥사 서산 · 초의 선사 뜻 기리며 ‘축제 한마당’



해남 대흥사에서 5월 22일 봉행된 제489주기 서산대제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으로 활약했던 서산 대사의 호국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문화행사가 땅끝 해남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5월 22일 경내 일원에서 ‘서산대사 제489주년 탄신대제 및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흥사 성보박물관 앞에서 열린 제15회 나랑사랑 글쓰기 대회를 시작으로 보살계 법회, 탄신대제 기념 법요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암도 스님(조계종 전 포교원장), 범각 스님, 김충식 해남 군수를 비롯한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서산대사의 영정을 모신 표충사 앞에서 진행된 법요식에서 보선 스님은 “어젯밤에 바람이 불고, 비가 심하여 폭포가 생겨나도, 아침에 보니 그 속에 고기가 그대로 자연히 놀고, 학이 편한히 울고 날아가더라”라는 서산 대사의 시를 인용해 법문했다. 스님은 “이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서산대사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며 “나보다 더 힘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범각 스님은 봉행사에서 “서산 대사를 비롯해 5000여 무명 승병과 의병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진왜란의 또 다른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의 기념행사는 전국 70여 곳에서 국가주도 행사로 이뤄지지만 서산 대사는 그 행적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서산 대사와 승병의 멸사봉공의 정신을 철저히 홀대하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요, 불행한 일”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국민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3~24일에는 대흥사의 산내암자인 일지암에서는 한국의 다성으로 추앙받는 초의 선사의 다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8회 초의문화제 및 제2회 대한민국차인대회’가 개최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륵사지 사리 친견하세요

6월 27일부터 특별전

지난 1월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11호)에서 발견된 사리장엄특별전이 6월 27일부터 한달간 익산미륵사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익산시, 금산사, 익산사암연합회 관계자들은 5월 18 · 21일 국립문화재 연구소 건축문화재 연구실과 전북도청에서 잇따라 사리장엄 특별전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행사 첫날인 6월 27일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운의식을 마친 사리를 익산미륵사지 특별전시실에 봉안한 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지역 기관장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대규모 사리친견법회가 봉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꽃밭에 울려퍼진 ‘찬송가’?

무안지역 국회의원 공식행사서 불러… 교계 항의

전남 무안 지역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찬송가를 불러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벌어졌다.

5월 14일 전남 무안 연꽃방죽에서 2000여 지역 어르신과 함께한 ‘제1회 황토골 은빛교실 연합축제 한마당’에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윤석 의원이 ‘사명’이라는 제목의 찬송가를 불렀다.

행사 후에도 이 의원측은 이에 항의한 지역주민과 불교계에 아무런 답변을 않았다. 이에 17일 무안 봉불사(주지 지오)와 광주전남포교사단(단장 백남용)은 ‘이윤석 국회의원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공식행사에서 특정종교 찬송가를 부른 이윤석 의원은 불자와 국민에게 공식사과하고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오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14일 제1회 황토골 은빛교실 연합축제 한마당이 열린 행사에 초청된 이윤석 국회의원이 축사를 마친 뒤 당초 격려사 예정인 노인회장을 대신해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다’며 다시 단상에 올라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가오’라는 내용의 찬송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5월 14일 무안 지역 행사에서 이윤석 의원이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

스님은 이 의원에게 종교편향행위를 강력항의하고 공개사과와 참회를 요구했으나 도리어 “‘서울에 앉아있어도 누가 무슨 의도로 어떻게 조정하는지 다 안다. 순수하게 하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오늘 이윤석 의원의 공개사과와 행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무안군에 묻는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오 스님은 “지역민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평소 군민의 날이나 면에서 열리는 공식행사에서도 찬송가를 부르곤 했다”며 “이 같은 이윤석 의원의 행위는 종교편향을 넘어 종교탄압으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불사 신도회와 광주전남포교사단은 “무안군민은 특정종교를 선교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식순에도 없는 찬송가를 공개적으로 부른 것에 대하여 국민과 불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참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이윤석 의원은 “사회자인 목사가 찬송가를 시켜 불렀을 뿐이며 종교편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가 된 이번 행사는 무안군이 ‘은빛교실’이라는 명칭으로 각 종교시설(교회와 불교) 20여 곳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모아 처음 연 행사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화지·원고지에 동심 가득

동련 광주지부·전북 봉축위 어린이 잔치 열어

가정의 달을 맞아 호남지역 불교계가 어린 불자를 위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사단법인 동련 광주지구(대표 도제스님)는 5월 10일 광주상무지구 무각사에서 광주지역의 가장 큰 불교 어린이 축제인 제2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원각사(주지 도제) · 한마음선원(선원장 혜월) 어린이회를 비롯한 만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어린 불자 300여 명은 글짓기와 그림 솜씨를 뽐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련에서는 매년 한차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창의적인 삶을 열어갈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맘껏 기량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북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 금산사 주지)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도 같은 날, 전주 덕진공원에서 제6회 전북어린이 큰 잔치를 열었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 가족 등 2000명이 참가해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다양한 민속놀이와 문화체험,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을 펼쳤다.

연꽃등 만들기 등의 불교문화 체험과 제기차기, 투호 등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장도 마련된 어린이들의 많은 인기를 끌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군산 정안사 주지 정안 스님

천일기도 세 번 회향 지역불자 ‘감화’



드넓은 호남평야가 시작되는 대야들녘 한켠 작은 호수를 품에 안긴 듯 오롯이 자리 잡은 정안사에서 1000일기도를 3번이나 회향한 정안 스님(사진)을 찾았다.

스님의 법명인 정안을 따서 절 이름도 정안사로 지었다는 정안사는 정안 스님과 특별한 인연을 간직한 도량이다.

정안사가 자리한 군산시 회면 면 고사리는 정안 스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으로 스님의 추억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애초 정안 스님은 서울의 한곳에 토굴을 마련하고 기도정진을 하려 작정했었다. 3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아 선산에 성묘하려 들러 고향마을을 바라보던 중 불현듯 이곳에서 기도정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998년 여름 13평짜리 농가주택을 조립식으로 개조하고 작은 임법당에 지장보살을 모시고 이듬해 하안거 백중무렵 까지 지장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큰 북에서 장정 4명이 나와 월성주를 주며 걱정하는 것을 체험한 스님은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그날부터 단숨에 1000배를 마쳤다. 자신감을 얻은 정안 스님은 2000년 5월 하안거 결제를 맞아 하루 3000배씩 100일 기도 원력을 세우고 정진에 들어갔다. 100일 기도 중 무릎이 끊어질 듯 쑤셔오고 비오듯 쏟아지는 땀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스님은 기도를 마쳤다.

스님은 이어 1000일기도 원력을 세우고 오로지 절하는 것에만 온 정성을 쏟아가며 절수행을 계속했다.

매 100일이 될 때면 정안 스님은 신도들과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3000배 정진 후 정일 스님을 친견해 가르침을 받았다. 2003년 첫 번째 천일기도를 회향했으나 절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 두 번째 천일기도를 입재하고 정진을 이어갔다.

밤에는 무릎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진 몸을 견디지 못해 병원에 입원할 지경에 이르러서도 병원 입원실에서도 스님은 3000배 정진을 멈추지 않았다.

두문불출하며 두번째 1000일 기도를 회향할 무렵 스님의 기도 정진을 눈으로 확인한 주변의 토지 소유주들이 스님에게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일이 생겼다. 가진 돈도 없고 오로지 정진만 하던 스님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외상으로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2번째 천일기도를 회향한 정안 스님은 토지불사와 법당건립 불사의 원력을 세우고 3번째 1000일기도를 입재했다. 하지만 이미 쇠약해진 몸으로는 절수행을 계속할 수 없어 세번째 1000일기도에서는 절수행을 줄이고 지장정근과 <금강경> 독송 등으로 기도를 이어갔다.

기도를 이어가자 신도들도 점차 늘었다. 불사도 탄력을 받아 주변 토지 약 3000평 정도를 마련하게 됐다. 세번째 1000일기도를 회향한 이 달에는 30평정도의 대웅전 건물도 낙성을 했고 1000평에 이르는 연지와 300평 규모의 차밭도 조성했다.

“불자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찾아 정진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꾸고 싶습니다.”

정안 스님은 앞으로 다양한 차를 생산하고 된장 등을 판매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민들과 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www.hyunbulshop.com
현불샵 OPEN EVENT!!
현대불교에서 야심차게 오픈한 불교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실속있는 상품!! 현불샵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과 편리한 구성!!

1. 회원 가입 이벤트 [5월 14일 ~ 6월 14일 까지]
■ 경품안내
단돈 천원의 상품을 구입해도 경품이 팡팡팡!!!
온라인 쇼핑몰 hyunbulshop.com 오픈기념
적립금 지급 이외에도 상품을 구입 하시는 모든 회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 OPEN일부터 한달간!!!)
· 1등(2명) : 북한 신비의 금강약돌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세트 (108염주+단주+합장주) 판매가 245,000원
· 2등(5명) : 건강에 좋은 만행화 지압 슬리퍼 판매가 60,000원
· 3등(10명) : 찜질효과가 탁월한 희담석 허리팩 판매가 44,000원
· 4등(20명) : 우주탑 차걸이 판매가 8,000원
2. 적립금 이벤트 (회원으로만 가입해도!! 적립금이 팡팡팡!!)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적립금 2,000점을 드립니다. (기간 : OPEN일부터 한 달간!!!)
3개월 동안 현불샵 추천해주신 분과 추천받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적립금 5,000점과
현대불교신문 무료 3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구독자인 경우, 법보시 추천으로 가능합니다. 사용유효기간 1개월 후 (자동소멸)
3. 현불샵 삼행시 짓기 이벤트
이벤트 창에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 이름의 삼행시를 지어 주세요~
연상되는 단어, 재미있는 표현 등..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순발력 있고 재치 넘치는 삼행시를 선정하여
반야심경 책갈피(북마크) 8개 1set를 총 20분께 드립니다.
※ 공통 :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를 현불샵 '공지사항'에 발표 해드리고, 개별 휴대폰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4.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2)2004-8215~6

기도정진용으로 최고! 건강에도최고! 선물로도 최고!
신비의 금강약돌 영험의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 규격 : 108염주 10mm
손목합장주 10mm
12단주 25mm
신비와영험의 금강염주세트
· 판 매 가 ~~245,000원~~
30%할인가 171,500원

고전체 장식도 반야심경을 책 갈피로 형상화 시킨 작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의 전체 뜻은 경명(經名) 그 자체이다.
인간 몸 자체가 환(幻)이요 공(空)이니 참 즐거운 경지인 지복에 이르는 "마음글" 또는 "만법의 근본 글"이라는 10자(字)에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즉설주왈" 18자에 600부 반야사상을 함축한 주경(呪經)이 심경(心經)이라는 점이다.
반야심경 책갈피 · 8개 1set
· 판 매 가 ~~24,000원~~
20%할인가 19,200원

· 소재 : 초극세사원단(무균)과 동(발냄새, 무좀방지 효과), 바이오 실리콘(지압효과) 창 – 발포 우레탄
– 발볼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 황동 8개 첨가로 발냄새와 무좀방지 효과에 탁월합니다.
· 크기 : 230~280mm (10mm단위)
· 사이즈를 신청하실때 메모에 남겨 주시면 맞추어 보내드립니다
지압 건강 슬리퍼
· 판 매 가 ~~60,000원~~
30%할인가 42,500원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의 물에 타서 쓰는 향탕수 관불수향
– 관욕이 끝난 후에는 향탕수를 버리지 마시고 제주들의 손을 씻게 하시면 좋습니다.
– 관불수향은 그 재료 자체가 피부보호 기능이 뛰어난 전단과 침향이 주 재료이므로 스킨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보습 효과와 아로마 요법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사용법
청정수에 1~2방울을 타서 희석하여 사용하되 양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2방울 정도면 세숫대야 하나 정도를 희석할 수 있는 양으로, 1병으로 약 50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규 격 (mm) : 30×110
· 용 량 : 20ml
· 주 재료 : 침향, 전단, 백단, 자단, 천단 등
관 불 수 향
· 판 매 가 ~~120,000원~~
30%할인가 84,500원

전통오동나무뒤주 20kg
· 판 매 가 ~~110,000원~~
12%할인가 100,300원

최소 20번의 공정을 수작업으로 거쳐 정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전통오동나무뒤주
· 특징
– 오동나무 원목의 연한부분을 쇠솔로 긁어내고 나이테의 경질부분만 남게 한 후 여러번의 사포질+칠+말림을 반복하여 만들어 충격에 마모가 적고 튼튼하며 표면에 입체감이 살아있습니다.
– 통풍이 잘되고 습기에 강하여 쌀을 보관하기 최적입니다.
– 쌀통같지않고 멋있는 고가구여서 인테리어 효과에 최고입니다.